

19세기 전기의 서양 남성 속옷에 관한 고찰

金珠愛·許貞蘭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진주전문대학 뷰티디자인과 겸임교수*

Western Men's Underclothes in The First Half of The 19C

Ju-Ae Kim and Jung-Ran Heo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Chin-Ju Junior College*

目次

Abstract	1. 1791~1820
I. 서론	2. 1821~1840
II. 19세기 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3. 1841~1856
III. 남성 속옷의 개요	V. 요약 및 결론
IV. 남성 속옷의 특징과 변천	참고문헌

Abstract

At the turn of the 19C, the first development, spreading to the all classes that peculiar attitude of mind associated with the term prudery. The second changes of habit which affected both sexes and their undergarments were the novel idea of personal cleanliness. Drawers appear to have been of two lengths, short, when worn under breeches, and long when worn under pantaloons and trousers. The dandy wore corsets for beauty.

In the early part of the 19C, the differences between day and evening style came to be accentuated. Not only the beau, but the soldier and hunting man were addicted to stays. The high standing collars of the early 1800s became fairly low in the middle of the century.

In mid of the 19C, a woolen under-vest was worn next to the skin and studs were an usual fashion. At about 1850 the bottom of the shirt was cut in a curve. For evening dress the elliptic collar was introduced.

I. 서론

최근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의생활 가운데 여성복 못지 않게 남성복도 색상, 기능 등 모든

면에서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성복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복의 史的 고찰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성복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걸 옷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속옷에 관한 고찰은 그

다지 많지 않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남성복 중에서 속옷에 관하여 고대에서 근세에 걸쳐서 연구¹⁾한 바 있다. 고대에는 속옷과 겉옷이 같은 성격을 가졌고, 중세에는 속옷이 최의식과 연관되었으며 노출되지 않아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세 초기의 르네상스시대를 통하여 속옷은 노출되면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바로크시대는 남녀 속옷의 기능이 분리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로코코시대에는 속옷이 다양해졌으며 성적매력을 위해 속옷을 많이 착용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근세에 비해 근대에 들면서 사회적인 여러 변화가 속옷에 적용됨으로써 새로운 항목의 추가 및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도입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19세기를 한 세기로 다루기에는 내용이 광범위하여 전기와 후기로 분류하였고 본고에서는 그 중 19세기 전기만을 다루었다. 특히 19세기 전기를 통하여 남성 속옷의 조형적 변화가 세 시기로 구분되어 나타남으로서 각 시기별로 기능 및 특징을 파악하여 남성복에 관한 이해와 고찰을 돕고자 한다. 그리고 1790년대는 시기적으로 18세기 말기에 속하나 복식의 특징이 19세기 흐름의 시작이므로 근대에 포함시켰다.

II. 19세기 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19세기는 근대 사회의 발생과 발전의 시기이며,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혁명의 격심한 변화를 겪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기틀이 다져진 시기로서 힘이 강대해진 중산층이 증가되고, 사회 전반에 그들의 영향이 미치어 시민적인 문화가 형성되었다. 18세기 말기에 발생한 프랑스 혁명은 사회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복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귀족과 시민의 구별이 사라져 귀족적인 복식 취향이 서민

적인 취향으로 바뀌었다. 국가간의 고유성도 사라져 민족문화는 제각기 빠르게 그 양상을 바꾸어 갔으며 공장과 직장에서의 생산활동에 어울리는 기능성과 근대적인 의식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복식이 요구되었다. 당시의 시대 사조는 모든 문화의 특성과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복식 또한 기능성을 중시하는 실용 본위로 되었다.

프랑스에서 군주제가 몰락됨에 따라 여성복 보다 남성복이 현저하게 변화되었으며 전시대의 색조와 장엄함은 나폴레옹의 궁중에서 장려하였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혁명은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19세기는 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비약적인 생활의 변혁을 초래하였는데 특히 합성섬유와 인조섬유의 발명 및 인공염료의 발명으로 직물의 종류와 의복 재료의 색상이 다양해졌으며, 재봉틀의 보급과 의복 수요의 증가로 의복의 대량생산 등 복식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근대사회를 구성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직물산업 중에서도 면직공업을 기점으로 하여 발생하였고, 중기기관으로 인해 석탄과 재철 등의 광업이 발전되어 산업 전반의 근대화를 가져왔다.

조오지 브루멜(George Brummel)에 의해 시작된 댄다이즘(dandyism)은 도르세이 백작에 의해 계속되었으며 1830년대와 40년대 신사복의 표준형이 설정되었다.

III. 남성 속옷의 개요

19세기 초기에 남성 패션은 프랑스 혁명 초기에는 우아함을 선호하였으나 후기에는 사회적으로 우아하고 고상함이 경멸되어 단정치 못한 스타일이 과시되었다. 이러한 영향이 속옷에 도입되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속옷을 사소하게 여겼으나 이제는 고상함과 연관된 특정한 태도가 중류층이나 그 이상까지 전파되었다. 후에 국민적 특성이 되는 고상한 취하는 행위는 나

1) 金珠愛, 시대 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Ⅰ),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5권 4호, 1997, pp.12-31.

金珠愛, 시대 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Ⅱ) - 중세 남성 속옷을 중심으로 -,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6권 1호, 1998, pp.136-148.

金珠愛, 르네상스시대의 남성 속옷에 관한 연구, 韓國服飾學會, 服飾, 40호, 1998, pp.171-180.

金珠愛, 로코코시대의 남성 속옷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6권 3호, 1998, pp.217-227.

金珠愛, 바로크시대의 남성 속옷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6권 4호, 1998, pp.203-212.

폴레옹 1세 시대의 전쟁(Napoleonic Wars, 1793~1814년)으로 일시적으로 제지되었다. 남성복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남성의 셔츠 앞은 신사를 나타내는 이전의 역할을 계속하였으나 풍성한 트라우즈(trousers)의 도입으로 다리의 형태를 감추었다.

1770년대의 Macaronies의 영향으로 개인의 청결함이 중요시되어 신분을 나타내는 새로운 표시가 되었다.

지금까지 속옷에 대한 정보는 동시대의 예증과 사진의 풍자적인 것으로부터 얻어졌으나 18세기 말엽부터는 박물관에 소장된 실물 의복의 증가와 패션잡지가 정보의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

1820년대에 새로운 시도가 의복에 행해져 왔으며 새로운 것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즉 계층구별에 대한 뚜렷한 왜곡이나 포기는 성격 매력에 있어서 미숙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1820년까지 의복은 계층표현을 강조하면서 발전되어 왔으나 이제는 유행을 따르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중산층의 증가된 사회적 중요성이 덕분에, 고상한 척하는 정신은 전시의 좌절로부터 회복되어 남녀의 의복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으며, 심리적인 일시적 상실은 신체의 여러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legs'는 'limbs'로 'breasts'는 'bosom'으로 간결하게 되었다. 신사의 트라우즈가 바지²⁾ 즉 아래쪽 걸음을 의미할 때 남성 속옷은 린넨으로서 묘사되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 속옷은 계층표현이 적었으므로 셔츠의 노출된 부분만이 신사를 나타내었다. 일부 남성은 유행하는 실루엣을 위해서 볼셋, 패딩을 사용하였고(그림 9)³⁾ 가는 허리를 꼴셋으로 강조한 반면에 이중으로 웨이스트코트를 사용하여 부피감을 주었다.

1850년대를 기점으로 댄디리즘이 가마된 화려한 색상, 우아한 재단, 주름잡힌 포털 등은 사라졌으며 웨이스트코트와 타이에 쓰이는 색상이 한

정되었다. 스포츠에 대한 인기는 각 운동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촉진시켰으며 고상함을 열망하는 중류층의 의복형은 성적 매력보다는 계층구분을 중요시하였다. 오히려 사회적 계층과 부의 증가 그 자체가 충분한 매력의 형태였다. 주간에 이용된 남성 셔츠는 앞의 사치스러운 과시를 피하였으며 셔츠 앞보다는 남성 수입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1850년 초기에 많은 변화가 신사복에 나타났다. 철도여행의 발달로 인해 일상용으로 약간 헐렁한 의복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트weed 슈트(Tweed suit)와 함께 셔츠와 칼라를 편안하면서 활동적으로 디자인되었다. 1850년대에 팬타론(pantaloon)이 트라우저로 바뀌었다⁴⁾. 1840년대는 속옷에 독창적인 항목들이 도입되었다. 1841년에 도입된 'three fold' 린넨 단추⁵⁾는 입찰 틀러에 견딜 수 있는 진주단추를 이용하였고 남성 속옷에는 피부에 밀접 되게 모를 소재로 한 새로운 속옷인 언더-베스트가 도입되었으며 점차 셔츠의 노출이 감소되었다.

IV. 남성 속옷의 특징과 변천

1. 1790~1820

1) 셔츠(Shirts)

셔츠의 앞은 프릴이 생략되었고 볼륨 있는 넥크로스(neckcloth)로써 감추어졌고 셔츠의 칼라는 5~6인치로 높은 스탠딩 칼라였지만(그림 1) 노출되지 않았다. 1806년경에 리플로 장식된 셔츠 앞부분이 일반화되었다. 주간용의 셔츠 가슴 부분은 자체 주름이 잡히고 트임을 단추로 여며서 단정하게 나타내었고 뒤쪽에서 코트 칼라 위로 셔츠 칼라가 노출되었다. 리플된 셔츠는 이브닝용으로 계속 이용되었으며 리플은 쉽게 못쓰게 되므로 드로워즈에 비해 셔츠는 불균형적으로 많았다. 넥크로스도 여분이 많이 필요하였으며⁶⁾ 잘

2) 'inexpressibles' 구어체, 古語; 바지, 1850년에 처음 나타나는 용어.

3) Phyllis G. Tortora and Keith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Pub, 1995. p.287.

4)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Bonanza, 1986. p.115.

5)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ham and Charles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dam & Charles Black, 1976. p.214.

1841년경에 John Aston에 의해 도입, 세 겹의 린넨으로 덮힌 단추.

6) Fremantle장군은 1801년경 야외복으로 56개의 셔츠, 9개의 드로워즈, 32개의 넥크로스를 소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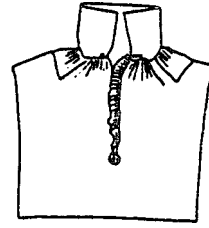


<그림 1> Wedding shirt, embroidered front and sleeves, 1795~1805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00)

차려입은 신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깨끗한 셔츠 2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19세기 과도기에 코트 소매가 손목에 닿아서 이전에 약간만 노출되던 셔츠-커프스가 노출되지 않게 되었다. 셔츠 커프스는 푸새가 되지 않고 열트임은 트인 채였으며 이 시기 말엽에 커프스가 뚜렷해졌다. 많은 패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전문인은 프릴로 장식된 구식의 데이-셔츠(day-shirt)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19세기 전기에 셔츠는 여전히 손으로 만들었다. 웨딩 셔츠는 위가 넓고 손목이 좁아지게 경사진 소매와 장식이 되어진 열트임으로 되었다(그림 1).

원래 타미(Tommy)로서 알려진 디키(dickey : 가장된 셔츠 앞)(그림 2)는 완전한 복장이 불가능할 때 시골에서 이용되었으며 플란넬 셔츠는 스포츠용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셔츠는 목 아래 부분에 작은 삼각형의 무와 겨드랑이의 큰 무가 있었다. 18세기에 보여졌던 이 특징은 19세기 중



<그림 2> Dicky, 182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67)

엽까지 계속되었으며 목에 비해 겨드랑이 무가 오래 지속되었다.

1840년경까지 천을 보강하기 위해서 수평밴드가 어깨의 상단부에 덧대어졌다. 1813년경에 이용된 셔츠는 어깨 솔기를 에워싸는 수직밴드가 부가되었으며 앞과 뒤에서 약 10인치 너비로 경사지게 이루어졌다. 처음에 이 밴드는 2인치로 좁았으나 위쪽의 수평밴드가 없어지자 1840년경에는 5인치 폭으로 넓어졌다. 셔츠 단부분은 직선으로 재단되었다.

셔츠는 18세기처럼 레이스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셔츠의 앞중심을 따라서 이중의 러플을 달거나 러플이 세로로 홈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칼라를 턱을 감싸면서 귀 부근까지 닿았다. 크라바트는 큰 사각 천을 접고 목을 여러번 둘러 앞에서 묶었으므로(그림 3) 크라바트의 부피 때문에 머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⁷⁾. 스톡은 목뒤에서 버클로 되거나 묶어지며 뻣뻣하게 푸새가 된 목밴드⁸⁾로 되었다.

2) 드로워즈(Drawers)

드로워즈는 두 종류로서 긴 드로워즈는 팬타문과 트로우즈 아래에 착용되었다. 발부분을 가진 긴 스토키넷(stockinette)⁹⁾ 드로워즈는 다리부분이 분리되어 만들어졌고, 이것은 허리밴드에 부착되어 뒤에서 연결되었다. 홈스펀(homes-

7)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1965. p.454.

8) Torrtora and Eubank, 앞의 책, p.270.

9) Cunnington and Beard, 앞의 책, p.275.

주로 18, 19세기에 이용된 평편 메리야스 재료로서 그물구조를 가진 매우 가늘게 짜여진 모직물, 보통 타이트한 판탈롱에 많이 이용.



<그림 3> Shirt, 1805~10 (*History of Costume*, p.453)



<그림 4> Footed long drawers, 1795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04)



<그림 5> Flannel drawers, 1805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04)

10) 장만지에서 짧은 확대를 가진 브리취즈.

11) Cunnington and Beard, 위의 책, pp.255-256.

중세부터 이용되며 영국 웨일지(Welsh)에서 만든 모, 격계 꼬여진 모사로 편직이나 능직을 이룸.

12) 부드럽고 얇은 견직물.

pun)을 소재로 한 허리밴드는 뒤에서 2개의 내부 끈으로 조여졌다(그림 4).

짧은 드로워즈는 브리취즈와 스몰클로즈(smallclothes)¹⁰⁾ 아래에 착용되었으며 짧은 폴란넬¹¹⁾ 드로워즈는 넓은 다리 형태로서 뒤에서 끈으로 조이고, 앞은 단추로 허리밴드를 조이며 사스넛(sarcenet)¹²⁾ 리본으로 무릎에서 묶었다(그림 5).

3) 브레이스(Braces)

남성 속옷에 이전부터 요구되어졌던 유용한 항목이 도입되었다. 브레이스는 서스펜더(suspenders)라고도 불리어지며, 브리취즈를 지탱하는 것 외에 가능한 많이 조이는 기능을 가졌으며 맞춤형 장치로 조였다. 이것은 브리취즈와 트라우지가 헐렁해진 후에도 계속 이용되었다. 노동자는 다리부분이 밀착된 의복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구식인 갤로즈(gallows; 바지 매통)라는 용어를 계속 유지하였다. 브레이스의 소재는 주로 모로코 가죽을 이용하였다.

4) 콜 셋(Corset)

멋쟁이들은 미를 위해 이 보조물로서 힘들게 조였다(그림 6). 워터루 전쟁 이후에 남성 허리는 뚜렷한 매력을 지녔으며 한 세기동안 멋쟁이의 상징이었다. 멋쟁이들은 뒤편을 고래수염으로



<그림 6> Corset, shirt, 1815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06)

만든 Cumberland 콜셋¹³⁾과 Brummell 보더스¹⁴⁾를 애호하였다.

5) 언더-웨이스트코트(Under-waistcoat)

언더-웨이스트코트의 소재는 스토키넷이었으며 모로 안을 대었다. 이것은 앞에서 13개의 Dorest thread 단추¹⁵⁾로 여몄으며 소매는 거드랑이 아래 틈을 가졌으며 한 개의 단추가 부착된 좁은 손목밴드로 구성되었다.

2. 1821~1840

1) 셔츠

셔츠는 주간과 야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비록 주간에 프릴된 셔츠 앞이 유지되기는 하였지만(그림 7) 보통은 턱(tuck)으로 구성된 셔츠 앞으로 되며 이것은 크라밋으로 감추어졌다. 이전처럼 부착된 칼라는 크라밋 위쪽에서 아래로 접혀질 정도로 높았다. 이전에 군인이 착용한 스톡은 1822년경에 일반화되었고 넓은 스톡은 검은 색이며 뒤에서 조여지는 목도리 형태였다¹⁶⁾.

이브닝셔츠는 매우 장식적이며 이브닝 셔츠 앞 가슴은 주름이 잡히거나 주름장식을 부착한 론이나 캔브릭으로 이루어졌다. 무지의 캔브릭 셔츠에 머슬린 프릴로 장식된 것이 가장 멋있고 남자다운데 단정하게 인식되었다. 셔츠는 손목밴드, 칼라, 앞부분만이 과시되었으므로 몸판과 소매는 린넨 대신에 고운 인디아 롱크로스(longcloth)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프릴된 셔츠는 주간에 노인, 전문직이나 중류층의 남성이 착용하다가 이 시기 말기에는 집사와 계급이 높은 시종이 유니폼으로서 착용하였다.

속옷에 처음으로 mother-of-pearl 단추¹⁷⁾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예는 George IV의 셔츠에서 알 수 있다(그림 7, 左). 스포츠셔츠의 원시 형태로서 알려진 aquatic 셔츠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1830년대에 드레스 셔츠(dress shirt)¹⁸⁾는 린넨을 소재로 하며 앞트임과 커프스에 푸세가 되었고 앞보다 뒤가 약간 길며 칼라가 부착되었다. 앞트임은 프릴이 되어진 머슬린 자보트로 구성되고 커프스는 직선으로 재단되며 가장자리에 단추가 부착되었다. 그리고 셔츠에 수직과 수평의 어깨 보강 밴드가 사용되었다. 1840년대까지 링크

13) Cunnington and Beard, 앞의 책, p.59.

1815~1820년 사이에 맨디들이 착용한 콜셋.

14) 위의 책, p.27.

Regency(Wales왕자의 섭정시대, 1810-1820년)시대의 맨디들에 의해 착용된 고래수염 콜셋.

15) 위의 책, p.65.

1700년부터 속옷에 이용되었다. 1800년부터 1830년에 걸쳐서 이 단추는 중심으로부터 흰 면실이 빠져 나가면서 청동 링을 덮게 만들었다.

16) Torrtora and Eubank, 앞의 책, p.287.

17) Cunnington and Beard, 위의 책, p.140.

큰 형태는 1770년에서 1800년까지 양성의 겹옷에 이용되었고 작은 형태는 1800년대에서 1820년까지 남성 셔츠에 이용되었으며 악세사리로 장식되었다.

18) French cuffs가 달린 예복용 와이셔츠.

스(links)¹⁹⁾는 드물었다.

2) 드로워즈

드로워즈는 긴 형과 짧은 형이 있으며 길고 다양한 것을 'trouser drawers'라 칭하며 드로워즈는 캘리코(calico), 면, 소모사와 두꺼운 차이나 드로워즈(China silk)도 사용되었다. 짧은 드로워즈는 편 능직 무명으로 만들었다.

3) 콜 셋

콜셋(그림 8, 9)은 스테즈(stays)라고도 불리며 이것을 멧쟁이의 분명한 표시였으나 멧쟁

이 뿐만 아니라 군인과 사냥꾼도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신체의 타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콜셋을 착용하였다. 이전까지는 콜셋이 미적인 기능만을 가졌으나 이 시기에는 신체보호의 실용적 기능이 부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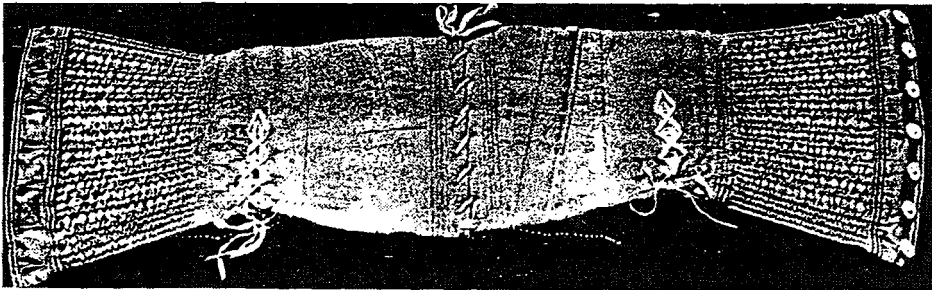
3. 1841~1856

1) 셔츠

주간용 셔츠는 좁은 중심 퍼널의 각 측면에 가는 수직 턱으로 구성되었다. 웨이스트코트의 디자인에 따라 셔츠 앞부분은 단추가 2~3개 정도



<그림 7> George IV's shirt, 1822~27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79)



<그림 8> Stays, 1842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80)

19) 고리, 커프스단추(cuff-links).



<그림 9> Calf and a tight corset, 1822 (*Survey of Historic Costume*, p.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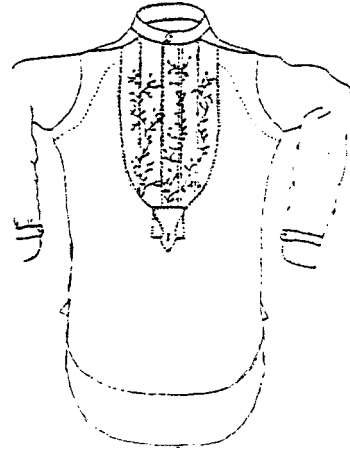
노출되었고(그림 10), 멋쟁이들은 앞부분이 자수로 장식된 셔츠를 착용하기도 하였다(그림 11). 셔츠 앞이 평평한 경우 웨이트코트는 높게 재단되고 큰 크라밋으로 셔츠 앞 전체를 가렸다. 일상용으로 팡크 줄무늬의 셔츠를 착용하였다.

이 시기 말엽에 장식용 단추(studs)²⁰⁾가 일반 단추를 대신하였으며 가는 금사슬로 연결되었다. 칼라는 목밴드의 뒤에서 단추로 부착되었고 뽀족한 끝 사이에 넓은 간격을 가지면서 크라밋 위로 뿔뿔하게 뻗었다. 커프스의 좁은 가장자리는 푸새가 되지 않은 채 노출되었고 1840년대 이후에 커프-링크스(cuff-links)²¹⁾가 유행하였다.

1850년대의 린넨 셔츠는 목밴드, 커프스, 앞부분에 푸새가 되어졌으며, 앞부분은 가는 턱으로 된 2개의 길다란 패널과 앞중심 아래로 장식단추 구멍이 있었다. 뒤집혀진 커프스는 기저에 단추와 가장자리에 링크 구멍을 가졌으며 셔츠는 전



<그림 10> Shirt front in relation to the waistcoat, 1856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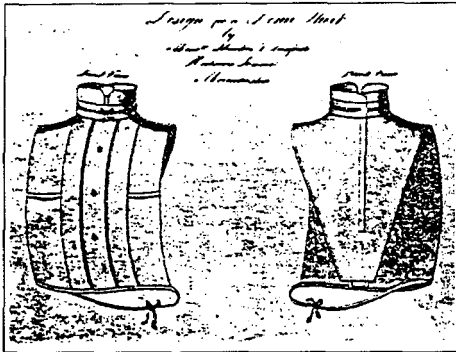
<그림 11> Embroidered shirt, 1856 (*Victorians Unbuttoned*, p.52)

체를 손바느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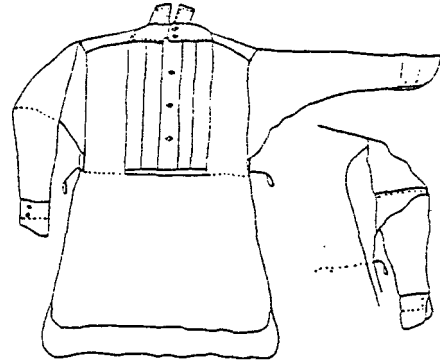
이 시기에 남성은 짧은 데미-셔츠(demi-shirt)(그림 12)와 보온을 위해 붉은 플란넬로 만들어진 델 수 있는 언더셔츠도 착용하였다(그림 13).

20) 원칼라 셔츠에 흔히 쓰이는 보석 재질의 앞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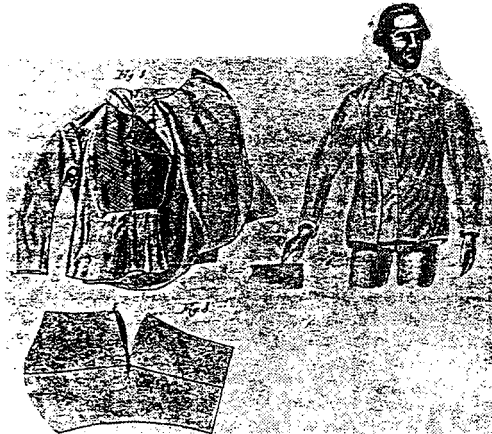
21) 19세기에 나타난 커프-링크스는 보석으로 장식된 단추형태로서 원래 프렌치 커프스(French cuffs)에만 사용되며 커프-링크스와 스타드(stud)가 한 세트로 이루어짐.



<그림 12> Demi-shirt, 1847 (*Victorians Unbuttoned*, p.60)



<그림 14> Shirt, 1848 (*Victorians Unbuttoned*,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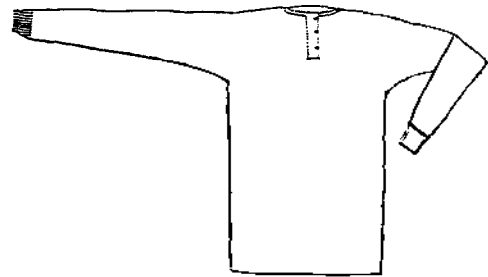


<그림 13> Undershirt, detachable, 1855 (*Victorians Unbuttoned*, p.58)

또한 무가 없이 재단된 셔츠(그림 14, 15)나 칼라의 뒤부분이 잘 맞도록 밴드 없이 재단된 칼라와 함께 허리에서 끈으로 치수 조절이 가능한 셔츠(그림 14)²²⁾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이용되었다.

1846년경에는 계층별로 구별되는 셔츠를 착용하는 것이 유행되어 분홍색 요트가 찍힌 셔츠는 선원용이었고 붉은 여우 무늬 셔츠는 사냥꾼이 착용하였다.

드레스 셔츠는 턱으로 된 가는 선이나 자수 장



<그림 15> Shirt, 1854 (*Victorians Unbuttoned*, p.118)

식선으로 풍부하게 되었다. 보통 셔츠 앞에 장식 단추나 단추가 없었으나 장식단추를 이용한 경우에는 2~3개의 금을 소재로 한 사슬로서 연결되었다. 이것은 여전히 단추로서 묘사되었으나 금으로 된 커프-링크스가 일반적이었다. 크라밧은 칼라의 가장자리를 덮을 정도로 넓었으며 목을 두번 두르고 큰 보우로서 묶었다.

주간의 셔츠는 이전에 가졌던 계층구별의 중요성을 잃어버렸고 이브닝드레스에서 셔츠만이 신분표시를 유지하였다.

19세기 초기에 이용된 높은 스탠딩 칼라는 이 세기 중엽에 상당히 낮아졌다²³⁾. 지금까지 직선으로 재단되었던 셔츠의 단부분이 1850년경에 곡

22) Sarah Levitt, *Victorians Unbuttoned*, Harper Collins, 1986, p.52.

23) Rosemary Ingham and Liz Covey, *The Costumer's Handbook*, Prentice Hall Press, 1980, p.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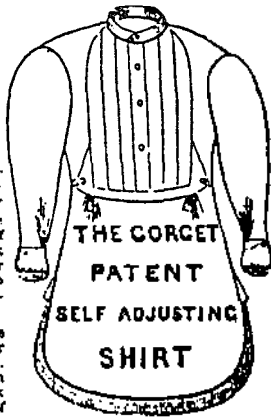
**THE ELLIPTIC COLLAR.
TO FASTEN AT THE BACK.**



WITH PATENT ELASTIC FASTENING.

A MOST PERFECT AND EASY FITTING SHIRT, and by a simple invention of the Patentee adjusts itself to all movements of the body, both back and front, either walking, sitting, or riding. Price, including the RESERVE ELLIPTIC WAISTBAND, 42s. the half-dozen.

The ELLIPTIC 3 fold COLLAR, quite unique, in all shapes, with PATENT ELASTIC FASTENING, 12s. the dozen. The Patent Elastic Collar Fastening can be attached to any Collar, opening back or front. 8/6 sent by post on receipt of 13 postage stamps.



**THE ELLIPTIC COLLAR.
TO FASTEN IN FRONT.**



WITH PATENT ELASTIC FASTENING

Directions for Measurement

1. Round the Chest, over the Shirt
 2. Round the Waist, over the Shirt
 3. Round the Neck, middle of the throat.
 4. Round the wrist.
 5. Length of Coat Sleeve, from centre of Back, down seam of sleeve, to bottom of Cuff.
 6. Length of Shirt at the back.
- The first four measures must be taken Tight.
 If the Shirts are to open back or front.
 If with collars attached (3s. the half-dozen extra)
 If Buttons or Studs in Front.
 If Buttons or Studs at Wrist.

<그림 16> The Gorget Patent and self-adjusting shirt and collar, 1853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89)

선으로 재단되어 20C까지 계속되었다(그림 1, 16). 이브닝 드레스에 뒤보다 앞이 높게 재단된 타원형 칼라(Patent Elliptic Collar)가 도입되었다(그림 16).

2) 드로워즈

19세기 중엽에 발목길이의 드로워즈는 건 스톡키넷을 소재로 이용하였고 핑크색으로 만들어졌다(그림 17). 허리밴드가 겹쳐지면서 여며진 9인치 앞트임은 진주 단추로 조였다. 뒤중심 아래의 트임은 허리밴드에서 2개의 견 테이프로 여며졌다. 브레이스의 편이 지나가는 구멍은 끈으로 묶었으며, 뒷중심의 각 측면에 한 개와 앞쪽의 각 측면에 2개씩 되어 허리 밴드는 6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7> Drawers, pink silk stockinette, mid of 19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90)

3) 언더-베스트

1840년경 부터 위생적인 목적으로 언더-베스트가 이용되었으며 보통 베리노를 소재로 이용하였다. 언더-베스트는 허벅지길이며 소매가 있었고 목부분의 짧은 트임에 단추가 부착되었다. 언더-베스트는 플란넬 언더-웨이스트코트를 대신하여 이용되었으며²⁴⁾ 플란넬은 열등한 소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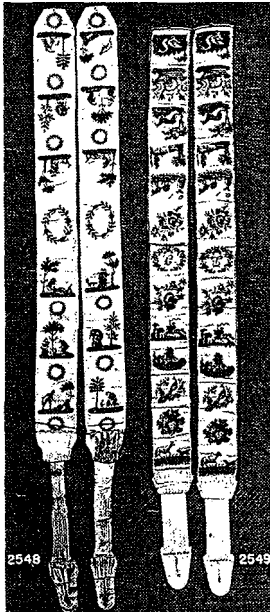
24) Cunnington and Beard, 앞의 책, p.225.

1790년대부터 이용되어온 소매가 없는 언더-웨이스트코트는 위에 입은 웨이스트코트보다 짧았으나 상부의 가장자리 위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노출되는 부분은 품질이 좋은 소재로 이루어지며 걸옷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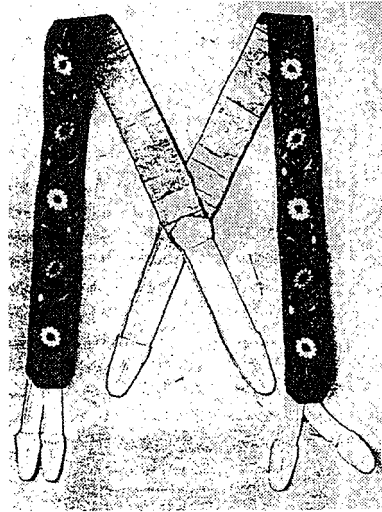
남성은 이전에 최대의 보온을 위해 플란넬 언더-웨이스트코트를 착용하였으나 1840년경에 메리노와 램프 울을 소재로 한 베스트가 광고되었다. 이제 부가적인 언더-베스트가 피부와 밀접되면서 셔츠 아래에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명칭이 독창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재단사는 여전히 웨이스트코트를 적용하였다. 이전대로 줄무늬가 계속 이용되었다.

4) 브레이스

드로워즈와 트라우저를 적절한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서 브레이스가 이용되었다. 이것은 벨벳에 나뭇잎 무늬 자수로 장식되었고 용수철이 어린 염소가죽과 함께 꿰매어졌으나 뒤에서 좌, 우의 브레이스가 함께 연결되지는 않았다. 우수한 것은 자수가 다양하게 되어졌으며(그림 18, 19) 노동층은 겔로즈라는 명칭을 유지하였다.



<그림 18> Embroidered braces, Early 19C
(*The Book of Costume*, p.886)



<그림 19> Embroidered braces, 184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91)

V. 요약 및 결론

19세기 전기의 남성 속옷을 특징적인 변화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791~1820

이 시기에는 남성의 셔츠 앞과 더불어 개인의 청결함이 새로운 신분표시로 되었고 셔츠에 무, 수직밴드, 수평밴드가 보강되었으며 셔츠 앞의 러플 장식과 높은 스탠딩 칼라는 넥클로스로서 감추어졌다. 긴 드로워즈는 발부분이 달린 구성면에서 특이한 형태를 취하였고 멧쟁이들은 미적인 면에서 콜셋을 착용하여 성적매력을 나타내었다. 브레이스가 새로 도입되어 브리취즈를 지탱하거나 조였으며, 셔츠를 대신하여 디키가 착용되기도 하였다.

2. 1821~1840

셔츠는 주·야간의 차이가 뚜렷하여 이브닝셔츠가 매우 장식적이었으며 드레스 셔츠는 앞보다 뒤가 약간 긴 특징을 나타내었고, 셔츠 노출부분

은 신분 표시의 기능을 유지하였다. 속옷에 처음으로 mother-of-pearl 단추가 도입되었으며 군인과 사냥꾼도 콜렛을 착용함으로써 미적인 면 외에도 신체보호의 실용적 기능이 추가되었다.

3. 1841~1856

남성은 셔츠 아래에 모로 된 언더-베스트를 착용하여 보온성을 고려하였으며 19세기 과도기에 브리취즈를 유지하던 브레이크는 발전되어 드로워즈도 유지하게 되었다. 1840년대 이후에 커프-링크스가 일반화되었고 1846년경에는 신분이 구별되는 셔츠를 착용하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1850년경에 셔츠가 곡선단으로 변화되어 20C까지 계속되었다. 셔츠에 뒤보다 앞이 높게 재단된 타원형 칼라가 도입되었고, 19세기 초기에 어용된 높은 스탠딩 칼라는 이 시기 중엽에 상당히 낮아졌다.

19세기 전기를 통하여 남성 속옷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전 세기에 비해 실용적 기능이 두드러짐으로서 근대의 사회적 영향이 속옷에 적용됨을 알 수 있고, 개인의 청결함이 새로운 신분표시로 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셔츠 앞부분의 신분표시로 계속됨으로서 남성 속옷에서 신분표시가 갖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셔츠에 있어서 주·야간의 형태 차이와 더불어 뒤보다 앞부분이 높게 재단된 칼라와 곡선단 등 조형상의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디키, 브레이크, 언더-베스트와 같은 새로운 항목이 도입되는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 Alison Carter, *Underwear*, B. T. Batsford, 1992.
- Bloomingdale Brothers, *Bloomingdale's Illustrated 1886 Catalog*, Dover, 1988.
- Carl Köhler, *A History of Costume*, Dover, 1963.
- Willett, C. and Phillis Cunnington and Charles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dam & Charles Black, 1976.
- Willett, C.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1981.
- Willett, C.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 Willett, C. and Phillis Cunnington,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Nineteenth Century*, Faber & Faber, 1973.
-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Bonanza, 1986.
- Jennifer Ruby, *Underwear*, Batsford, 1996.
- Joan Nun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rbert, 1990.
- Joanne Olian, *Wedding Fashions 1862~1912*, Dover, 1994.
- Lawrence Langner, *The Importance of Wearing Clothes*, Hastings House, 1959.
-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Volume I, II, Crown Pub. 1948.
- Phyllis G. Torrtora and Keith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Pub. 1995.
- Rosemary Ingham and Liz Covey, *The Costumer's Handbook*, Prentice Hall Press, 1980.
- Sarah Levitt, *Victorians Unbuttoned*, Harper Collins, 1986.
- Valerie Cumming, 廣瀬尙美 譯, *Exploring Costume History 1500-1900*, 關西衣生活研究會, 1991.
- 青木英夫, 下着の流行史, 雄山閣, 1991.
- 日本ボティファッ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 신영일, 신사복 이야기, 모르고 입는 옷, Vosenza, 1993.
- 신영일, 알고 입는 옷, 모르고 입는 옷, Vosenza, 1995.